

# 한국 여자골프 부진 속 부활의 나라 떠는 고진영

다음주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연패 도전

지난해 6월 이후 한국 선수 18개 대회 연속 '무관'

손목 부상에서 회복한 고진영(28)이 명예 회복을 버리고 있다.

고진영은 지난 26일(한국시간) 태국 춘부리 시암 컨트리클럽 파타야 올드 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이글 1개, 버디 6개를 묶어 8언더파 64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6언더파 272타를 친 고진영은 공동 6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고진영은 마지막 날 페어웨이 안착률 92.9%, 그린적중률 83.3%를 기록했다. 특유의 날카로운 아이언 샷과 정교한 퍼트는 다음달 2일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서 선전을 기대케 했다.

고진영은 지난해 손목 부상으로 고전했다. 오랫동안 세계랭킹 1위를 지키다가 5위로 미끄러졌다.

고진영은 겨우내 훈련을 통해 샷 감각을 조율했다. 떨어진 컨디션과 심리적으로 지친 마음을 회복하는 것에도 힘을 쏟았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고진영은 "작년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잊지 못할 한 해였던 것 같다. 작년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올해 첫 대회에 나왔는데, 잘 마무리한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것이 더욱 긍정적이다.

고진영은 "굉장히 오랜만에 언더파를 많

이 쳤기 때문에 지금 기분이 너무 좋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한다면 더 좋은 결과로 올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각오를 다졌다.

다음주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서 2연패에 도전하는 고진영은 "작년에 싱가포르 대회에서 우승하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며 "디펜딩챔피언으로 대회를 할 때는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힘이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다. 그 힘을 알만큼 뻘뻘하게 따라 대회 성적을 좌우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 선수들의 무명은 계속 이어졌다.

한국 여자골프는 지난해 6월 메이저 대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전인지의 우승 이후 18개 대회 연속 우승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2019년 무려 15승을 합작했던 한국 선수들은 2020, 2021년 각각 7승을 올리는 데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우승은 4승에 불과했다. 전인지 이후 18개 대회에서 우승 선수가 나오지 않고 있다.

김성현, 고진영, 김세영, 김효주 등 한국골프의 대들보였던 선수들이 오랫동안 우승권에서 멀어진 것이 원인이다. 수년 전부터 눈에 띄는 신인 선수들이 없다는 것도 예년과 다른 점이다.



K리그1 포항 이호재. (사진=프로축구연맹 제공)



서울 임상협과 이태석, 나상호, 기성용

## “피는 못 속여” 개막전 영웅 이호재…K리그 2세 선수 주목

프로축구 K리그1 포항 스틸러스의 유망주 스트라이커 이호재(23)가 개막전에서 멀티골을 폭발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특히 이호재는 성남FC 이기형(49) 감독의 아들이라는 점에도 시선이 쏠린다.

이호재를 비롯해 대를 이어 국내 그라운드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눈에 띄는 만큼 올 시즌 2세 선수들이 얼마나 큰 활약을 보여줄지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호재는 지난 26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대구FC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3 개막 1라운드에서 포항의 3-2 역전승을 이끌었다.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이호재는 팀이 1-2로 뒤진 후반 32분 제카 대신 그라운드를 밟았다. 그리고 후반 39분과 후반 45분 연속 골로 짜릿한 역전승을 일궈냈다. 2021년 포항에서 프로 데뷔한 이호재는 개막전 멀티골로 자신의 한 시즌 최다골과 타이틀을 이뤘다.

이기형 성남FC 감독 아들인 이호재는 191cm의 큰 키에 탄탄한 체격을 갖춰 체공력과 포스트에 플레이에 능하다. 이호재는 경기 후 “아버지가 수고했다. 잘했다고 하실 것 같다”며 “(아버지가 성남FC에서)감독으로서 하고 싶어 하는 축구가 있다. 개인적으로 후회 없는 경기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버지 이기형 감독도 성남FC 전신인 성남 일화 선수 출신이다. 이 감독은 1996년 수원 삼성에서 데뷔해 성남 일화, 서울, 오를랜드시티 등을 거쳐 2010년 현역 은퇴했다.

선수 시절 이 감독은 오른쪽 풀백으로 뛰며 캐논 슈터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다. 프로 통산 254경기에 출전해 23득점, 23도움을 기록했다. A매치 통산 47경기에 출전했다.

이기형-이호재 부자 외에 K리그에서 대를 이어 뛰는 부자 축구선수는 더 있다.

2002 한일월드컵 4강에 힘을 보탬을 이을 용(48) 용인시축구센터 총감독의 두 아들이 이을용이 뛰었던 프로축구 FC서울에서 함께 프로 생활을 하고 있다.

이을용 감독의 첫째 아들인 이태석(21)은 2021년부터 2년간 46경기에 출전해 2도움을 기록했다. 이태석은 올 시즌 개막전에도 출전해 전후반을 모두 소화했다.

FC서울 U-18팀 오산고 출신으로 지난해 연말 프로계약을 맺은 이은준(19)은 이을용의 둘째 아들이다. 측면 공격수인 이은준도 올 시즌 프로 데뷔를 꿈꾸고 있다.

서정원(53) 청두 톈칭(중국) 감독의 막내 아들 서동한(22)은 올 시즌 아버지가 뛰었던 수원 삼성의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서동한은 수원 유스 출신으로 서정원 감독과 같은 측면 공격수다. 플레이 스타일까지 닮은 것으로 알려진 서동한이 수원삼성 전설적인 선수인 아버지만큼 활약을 할지 주목된다.

신태용(53) 현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신재원(25)도 아버지가 맹활약했던 성남FC에 올 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으로 입단했다.

신재원은 아버지처럼 공격수다. 원포워드와 윙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 빠른 발을 통한 드리블과 슈팅, 원거리 크로스 능력이 장점으로 꼽힌다. 아버지 신태용은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성남FC 전신인 일화, 천마, 천안 일화, 성남 일화 등에서 뛰고 은퇴했다. 신태용은 2003년 K리그 최초로 60경기 60도움을 기록했으며 K리그 최초 400경기 출장을 달성했다.

김기동(51) 포항 스틸러스 감독의 아들 김준호(21) 역시 포항 유스 출신으로 2021년부터 포항에서 뛰고 있다.

이에 앞서 최순호 수원FC 단장의 아들 최원우, 오세권 대한축구협회 공무원의 아들 오범석 등이 부자 선수로 이름을 날렸다.

## ‘감 잡은’ WBC 대표팀…애리조나 실전 끝, 이제 고척으로

애리조나서 4차례 연습경기…박병호·강백호·김혜성 맹타 눈길



이강철 WBC 대표팀 감독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대표팀이 미국 애리조나 캠프

프 파루리에 들어간다.

지난 15일 미국 애리조나 투손에 모여 합숙 훈련을 시작한 대표팀은 4차례 연습경기를 소화하며 순발에 맞췄다. 당초 27일 LG 트윈스와 평가전까지 총 5경기를 치를 계획이었지만, 날씨로 인해 LG전은 취소됐다.

대표팀은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 올리는 데 중점을 뒀다.

WBC를 준비하며 예년보다 일찍 몸 만들기에 돌입한 타자들은 연습경기부터 뜨거운 타격감을 선보였다.

대표팀 중심을 책임져야 하는 박병호(KT 위즈)는 타율 0.545(11타수 6안타) 1홈런 6타점으로 예열을 마쳤다.

강백호(KT)의 화력도 만만치 않다. 첫 연습경기였던 NC 다이노스전 첫 타석부터 홈런을 쏘아 올렸던 강백호는 4경기서 타율 0.316(19타수 6안타) 2홈런 5타점을 뽑아냈다.

대표팀 백업 멤버로 분류된 김혜성(키움 히어로즈)도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김혜성은 연습경기서 0.643(14타수 9안타) 4타점으로 연일 맹타를 쳤다.

## 지소연 “유럽 피지컬 버거워…그래도 가능성 있다”

여자월드컵 트로피 투어 한국 방문행사

2023 호주-뉴질랜드 여자월드컵에 나서는 지소연(32)이 유럽 선수들에 비해 체격 면에서 열세를 인정하면서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지소연은 27일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 라이브 플라자에서 열린 2023 호주-뉴질랜드 여자월드컵 트로피 투어 한국 방문 행사에서 최근 참가한 아놀드클라크컵 결과에 대해 “굉장히 오랜만에 유럽 선수들과 경기를 했다. 비시즌 중에 시즌 중인 유럽 선수를 상대한다는 게 버겁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가능성을 많이 봤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희는 유럽 선수들보다 기술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피지컬 부분에서 유럽에는 높은 스피드로 엄청난 많이 달릴 수 있는 최유리 같은 선수가 많다. 버거워 면이 있는데 저희도 시즌 돌입하고 몸 상태를 끌어올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영국은 세계적인 팀이다. (경기)하면서 좀 놀랄기도 했고 강팀과 하면서 즐거웠고 많이 배웠다”고 밝혔다.

지소연은 이번 월드컵 목표에 관해서는 “(첫 경기인)콜롬비아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잘하는 게 목표고 거기서 잘하면 다음 경기들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한 최유리는 “영국에서 열린 아놀드클라크에서 감독님이 유럽을 상대로 피지컬로 버티쳐 보는 것을 두려워 말라 하셨다”며 “비록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저한테는 주어진 게 더 많았던 시합이었다”고 돌아섰다.

그는 “감독님이 항상 말하는 게 누군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월드컵이라는 것”이라며 “저는 이번이 첫 월드컵인데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소연과 최유리는 이날 행사에서 월드컵 트로피를 직접 봤다. 지소연은 “트로피를 보니까 정말 월드컵이 다가온 게 느껴진다”며 “저희가 보는 것만 아니라 손으로도 만져보고 싶다”고 말했다. 최유리는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하니 보자마자 가슴이 뛰고 떨



27일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 열린 2023 FIFA 여자월드컵 트로피투어 행사에서 콜린벨(왼쪽부터) 대표팀 감독, 최유리, 홍은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사라 간도인(Gandoin Sarah) FIFA 사절단 대표, 지소연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소연은 다음 월드컵에도 출전할 생각인지를 묻는 질문에 “(만 나이 통일로)올해 나이가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음 월드컵도 부상이 없다고 하면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